

## 피부건조증 환자에 대한 아로마오일 사용시 스킨 pH · 소양증 변화

김은정 · 유왕근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 The Effects of Aromatherapy on Skin pH and Pruritis in Patients with Xerosis Cutis

Eun-Jeong Kim & Wang-Keun Yoo

Dep.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Daegu Haany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possibility of aroma oils as the complementary medical goods specially for the effects of aromatherapy on xerosis cutis.

**Materials and Methods** : The participants were 23 adult patients and all participants of this study use aroma oils which is known to effect on xerosis cutis. The subjects consist of voluntary patients with xerosis cutis in Seong-So Hospital in Andong Kyoungbuk, Korea. From April 1st to April 30th, 2004 for 4 weeks, the subjects massaged aroma oils on itching parts or the whole body. Aroma oils were Lavender, Rosemary, Jasmine and blended drop by drop per 10ml jojoba oil which used a carrier oil. Skin pH was measured with a skin pH meter(Model : HI98110, Se-Chang instruments, made in Portuga.<sup>1)</sup> After 4weeks using aroma oils, the participants answered questions about the feeling of satisfaction with aroma oils.

**Results** : Changes in the physiological indices. The mean deviation of skin pH was  $5.58 \pm 0.47$  points before using aroma oils and  $5.53 \pm 0.45$  points after 2 week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p=0.221$ ). MD was  $5.36 \pm 0.41$  points after 4 weeks using aroma oil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of 0.22 points( $p=0.001$ ).

Changes on the Pruritus Score Scale. A modified scale of the Pruritus Score Scale(Duo, 1987) was used to measure the severity, location, frequency, and the inconveniences of daily life due to pruritus. The maximum scale of severity was 4 points, the full marks of location was 2 points, the full marks of frequency was 3 points, the full marks of inconveniences of daily life due to pruritus was 3 points. The

\* Corresponding author : Wang-Keun Yoo, Dep.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Daegu Haany University. Tel : 82-53-819-1411. E-mail : wkyoo@dhu.ac.kr

scores ranged from 0 to 12, with 12 indicating the most severe pruritus.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severity and frequency score at 4 weeks later(severity  $p=0.097$ , frequency  $p=0.633$ ).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score of location and the inconveniences of daily life due to pruritus(each  $p=0.003$ ).

**Conclusion** : Generally speaking, the patient suffering from renal itch is the higher than normal in skin pH levels. that means to show alkaline condition of skin surface. In some case in this study, skin pH levels was rather lower than normal levels when measured actually patients suffering from renal itch by skin pH meter. But in this study post-test skin pH levels decreased, showing the contribution of aromathrapy to acidic condition of skin surface in suffering from renal itch. It seems to be some help to cure a pruritus and also have no ill effects on aroma oils.

---

**Key words** : Aromatherapy, Skin pH, Pruritis, Xerosis Cutis

---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피부 건조증은 노인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피부과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피부가 노화됨에 따라 표피의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피지분비가 감소되어 발생하는데 노인이 아닌 경우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나 잦은 목욕,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서 생길 수도 있다. 그밖에 나이드는 사람이 이노제나 H2 항히스타민제 복용 후 아연 결핍이나 점액수종, 림프종, 종양, 에이즈 감염, 세척제나 용매제와 같은 탈지제를 사용하는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젊은 사람이나 비타민 A의 불균형이나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 다운증후군과 같은 유전성 질환에서도 건조된 피부와 미세한 비늘이 발생할 수 있다(대한피부과학회, 1992).

이러한 피부건조증의 임상양상은 미세한 비늘이 주로 사지에서 나타나고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피부 균열 현상이 나타나며 소양증과

이차적 습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부의 노화가 주요 원인일 때는 완치가 매우 힘들고 수분과 피지의 부족에서 병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피부가 건조해 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http://www.healthkorea.net>).

따라서 피부건조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항히스타민 내복제와 보습제 및 연고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피부건조증은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평소 환경이나 생활습관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습제나 영양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적 요법의 병행이 필요한 질환이다. 또한 장기간 연고제를 사용하게 되면 습관성 피부질환이 되기 쉬우므로 아로마테라피에서 말하고 있는 아로마오일들이 피부의 건조증의 치료효과가 있다면 피부건조증에 대한 보완제의 가능성과 더불어 환자의 선호도 등 여러 면에서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로마테라피의 방법 중 하나인 아로마오일을 사용하는 마사지 방법은 보습제 작용을 할 수 있는 케리어오일에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구성된 식물성 아로마오일을 브랜딩하여 피부에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마사지 자체가 피부에 가지는 장

점과 오일이 가지고 있는 보습제 작용, 아로마 오일에 사용된 식물들의 치료성분 및 좋은 향으로 인한 장점들이 결합되게 된다.

아로마테라피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 효과가 다양하며 향기를 가진 식물을 재료로 한 오일을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최근 기존 피부관리실 뿐 아니라 피부과나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아로마테라피를 시술하고 있으며 아로마전문샵도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2002년 말부터 국내에 웰빙(well-being) 개념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는 아로마테라피에 관한 전문가의 검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이나 환자에 부정확한 정보가 소개되고 있으며 아로마테라피는 산업마케팅의 주요 주제로 사업적 유행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아로마오일의 치유력은 향기요법의 인기요인이다. 아로마오일의 치유력에 관한 주장은 일부에서 임상실험이나 보다 과학적 검증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원료나 경험론적인 것이 많다. 아로마오일이 단순히 방향제나 미용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질병에 치유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조 연구(control studies)나 임상실험을 하면 좀 더 그 근거가 명확해질 것이다. 병원 근무자나 향기치료전문가(아로마테라피스트)들은 치료의 목적으로 아로마오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과학적 검증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피부건조증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아로마오일의 성분 및 치료작용을 분석하여 실제 피부건조증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피부건조증에 대한 아로마테라피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피부건조증에 대한 아로마오일의 보완재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 3. 연구 범위와 선행연구

### 1) 연구의 범위

피부건조증은 노인성습진으로도 불리는 질병으로 흔히 노화로 인해 올 수 있고 아토피나 잦은 목욕 등으로 인해 피부건조가 올 수 있다(피부과학회, 1992). 이 연구에서는 피부건조증의 원인별 분류는 하지 않았으며, 여러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피부건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피부건조증의 증상이 될 수 있는 피부의 수분보유량과 소양감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피부건조증의 다른 임상양상인 습진이나 피부균열, 홍반 등은 전문의의 진단에 관한 영역이므로 언급하지 않았다.

### 2) 선행연구

아로마테라피에 관련된 논문들에는 역사나 이론에 관한 소개를 하는 논문이 다수 있었고, 최근에는 에이즈(Buckle J. 2002)나 항스트레스(Rimmer L, 1998), 탈모(Isabelle C. Hay 외, 1998 등), 만성병을 지닌 환자들의 케어(Ballard CG, O'Brien JT, Reichelt K, Perry EK, 2002), 비만(한선희 외, 2003), 분만고통감소(허명행 외, 2003)나 월경곤란증(김혜경 외, 2001)이나 생리통감소(한선희 외, 2002), 금연(권구일 외, 2001) 등에 관련된 논문들이 있었다.

그러나 피부 질환에 아로마테라피를 시술하였을 시 치료효과에 관한 임상실험 논문은 극소수였으며, 혈액투석환자들의 소양증에 관한 대조 연구(control studies)로 노유자 외(2002) 연구가 있었다. 노유자의 연구는 소양감을 호소하는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항히스타민제의

복용과 더불어 12명의 실험군에게 팔 부위를 아로마오일로 마사지하여 그 효과를 조사한 연구이다.

아로마오일을 피부에 도포하여 증상의 개선 효과를 살피는데는 약물이나 주사제와의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며, 아로마오일로 마사지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이 일반 보습제와 비교하여 값이 고가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아로마오일 마사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피부건조증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아로마오일 만을 사용하였을 때와 치료 전과 후의 변화를 조사하여 치료효과를 검증하여 아로마오일의 보완재 대응 가능성 탐구에 초점을 두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 1) 대 상

연구대상은 안동시 성소병원의 피부건조증을 가진 환자 남·여 중에서 지원자 25명에게 브랜드한 아로마오일을 제공하여 피부건조증이 심한 부위 및 전신에 하루 2~3번 피부에 바르도록 하였으며, 중도에 포기한 환자가 2명으로 23명의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아로마오일 외에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이나 연고제 사용을 금하였다. 환자가 소양감을 호소하고 피부건조로 인한 피부균열이나 습진 등 피부건조증의 질병의 증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토피, 노화, 잦은 목욕·등 피부건조증을 가져오게 된 원인별로 구분하여 연구하지 않았다.

#### 2) 기 간

2004. 4. 1~2004. 4. 30 4주간 실험하였고, 실험 기간 동안 2주 후 1회 환자들에게 외래 진료를 받도록 하여 총 3회에 걸쳐 실험결과를 관찰하였다.

## 2. 실험방법 및 절차

### 1) 아로마오일 브랜딩과 사용방법

#### (1) 아로마오일 브랜딩

케리어오일인 조조바오일 10ml당 피부건조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제라늄, 라벤더, 로즈마리 아로마 오일 각각 1한방울 씩 브랜딩하여 약통에 40ml 씩 30명의 피부건조증 환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환자의 필요시 추가로 한 병 더 제공하였다.

- ① 조조바오일(JOJOBA, Simmondsis chinensis), made in England, 제조원: 이브테일러(영국)
- ② 제라늄(Pelargonium graveolens), made in England, 제조원: 이브테일러(영국)
- ③ 라벤더(Lavandula Angustifolia), made in England, 제조원: 이브테일러(영국)
- ④ 로즈마리(Rosmarinus officinalis), made in England, 제조원: 이브테일러(영국)

#### (2) 아로마오일 사용방법

아로마오일은 하루 2~3번 심한 부위나 몸 전체에 바르도록 아로마오일 제공시에 환자에게 사용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기간 중 외래 진료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사용횟수와 방법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 2) 스킨 pH의 측정

스킨 pH Meter(세창인스트루먼트사, 모델

명 : HI98110, made in 포르투갈) 사용하여 피부건조증이 나타나거나 가려운 부위를 측정하였고 몸 전체에 피부건조증이 보이는 경우 팔(upper arm) 부위를 아로마오일 사용 전과 사용 3주 이후 2번 측정하였다. 스킨 pH 측정은 성소병원 피부 비뇨기과 외래진료실에서 하였으며, 진료실의 평균 온도는 22℃이고, 습도는 66%였다.

### 3) 절차

테스트 전에 모든 실험대상자는 비누나 기타 화장품 사용이 스킨 pH 측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측정 전 측정부위를 물로 씻도록 하였다.

### 4) 약물복용 및 연고 사용

아로마오일 이외의 약물의 복용이나 연고제의 사용은 금하였다.

### 5) 관찰항목

스킨 pH, 소양증, 아로마오일의 만족도와 부작용.

(1) 스킨 pH : 스킨 pH 측정기(모델명 : 세창인스트루먼트사, 모델명 : HI98110, made in 포르투갈)로 피부특성을 측정하였다.

(2) 소양증 : Instruments. The Pruritus Score Scale(Duo, L.J. 1987, ※ 본 논문에서는 증상점수표라 명함) 수정하여 심각성(severity), 위치(location), 빈도(frequency)를 측정하였다.

### 6) 소양감 측정

증상점수표는 동일 그룹에게 한달 간격으로 피부건조증 치료 전과 후 두 번 제공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 7) 평가

경피의 수분보유량 측정결과와 증상점수표

의 변화된 내용을 통계 처리하여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피부건조증의 보완제로써 아로마오일을 평가하였다.

### 3. 증상점수표와 설문지의 구성

소양증 측정은 The Pruritus Score Scale (Duo, L.J. 1987)을 수정하여 소양증의 심각성, 부위, 빈도를 측정하는 증상점수표를 구성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4점으로 소양증이 가장 심한 경우의 점수가 14점이다.

#### 가. 소양(가려움) 증상의 정도(severity)

no inch(0점), 긁지 않아도 되고 범위가 적은 경우(1점), 범위는 적으나 긁어야 되는 경우(2점), 긁은 후에도 계속 가려움(3점),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심하게 긁는 경우(4점).

#### 나. 위치(location)

가려운 곳이 없음(0점), 신체 중 한 곳이나 두 곳이 가려운 경우(1점), 3곳 이상이 가려운 경우(2점).

#### 다. 빈도(frequency)

가려운 곳이 없음(0점), 가끔 가려움(1점), 자주 가려움(2점), 항상 가려움(3점).

#### 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없음(0점), 단지 조금(1점), 어느 정도(2점), 아주 많이(3점).

\* 소양증 측정 점수는 0~9점으로 가장 심각한 경우가 12점이고, 가와 나 항목은 통증에 관련된 점수로 합산하여 통계처리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Version. 10.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빈도분석 및 평균값 분석 등을 제외할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주된 분석 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첫째는 아로마 오일 사용전과 사용후의 상태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둘째는 변수간의 관계 분석으로서 상관성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한편 통계적인 검정에 대한 유의도의 판단은 표본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0.05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실험환자의 구성

실험환자는 총 23명으로 남자가 13명(56.5%), 여자가 10(43.5%)이었다. 연령의 분포는 40~49세가 5명(22.7%), 50~59세가 4명(18.2%), 60~69세가 10명(45.5%), 70세 이상 3명(13.6%)으로 60대가 가장 많았다. 피부건조증의 발병기간은 6개월 미만인 47.6%, 6개월~2년 미만이 33.3%, 5년 이상이 19.0%이었다. 그리고 실험대상자들은 모두 연령이 40대 이후로 임신부나 소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 2명(8.7%)이었고, 당뇨가 3명(13.0%), 신장병 및 기타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각각 9명(39.1%)이었다. 실험환자의 56.5%가 피부건조증 때문에 연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항히스타민제도 34.8%가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34.8%만이 보습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표 1).

#### 2. 스킨 Ph 변화

아로마오일 사용 전과 후의 스킨 Ph 변화량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실험환자의 아로마오일 사용 전의 스킨 Ph의 평균은  $5.58 \pm 0.47$ 이었으나 아로마오일 사용 후에는 평균  $5.36 \pm 0.41$ 로서 0.22 감소하여, 아로마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스킨 pH 수치가 사용 전에 비해 낮아진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p=0.001$ ).

<표 1> 실험환자의 구 명(%)

	구 분	빈 도
성별	남	13(56.5)
	여	10(43.5)
연령	40세 이상~	5(22.7)
	50세 미만	
	50세 이상~	4(18.2)
	60세 미만	
	60세 이상~	10(45.5)
	70세 미만	
70세 이상	3(13.6)	
발병기간	6개월 미만	10(47.6)
	6개월 이상	7(33.3)
	~2년 미만	
	2년 이상	4(19.0)
동반질환	아토피	2(8.7)
	당뇨	3(13.0)
	신장	9(39.1)
	기타	9(39.1)
	연고의 사용경험	있다
	없다	10(43.5)
항히스타민제의 복용경험	있다	8(34.8)
	없다	15(65.2)
보습제의 사용여부	항상 사용한다	4(17.4)
	가끔 사용한다	4(17.4)
	사용하지 않는다	15(65.2)

〈표 2〉 아로마오일 사용 전과 후의 스킨 pH 변화

구분	mean±SD	t	p-value
사용 전	5.58±0.47	3.845	0.001
사용 4주 후	5.36±0.41		

### 3. 증상점수의 변화

아로마 오일 사용 전과 후의 증상점수(통증, 빈도, 영향)를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에 의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개 항목에서 모두 평균값이 감소되었음이 나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용 전 수치와 사용 후 평균값의 차이는 통증이 1.30, 소양감의 빈도가 0.13, 소양감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0.70이었다. 이와 같은 아로마오일 사용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한 유의수준은 통증과 영향은 각각 0.05와 0.01으로 아로마오일을 사용하게 되어 통증과 빈도의 증상이 개선되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소양감의 빈도는 사용 전과 후의 차이가 없었다(p=0.633).

## V. 고찰 및 결론

피부건조증은 건조 피부의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한 질병으로 평소 건조한 환경을 피하고 피부 보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피부건조증은 만성적인 피부질환으로 건조와 가려

움의 특징적인 증상을 갖는 질병으로 치료를 위해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 피부위축, 피부장벽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과 사용 중단시 나타나는 반동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로마오일은 약리 효과를 일으키는 화학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피부의 질환에 적용되는 아로마오일의 경우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약에 의한 치료와 함께 보완재로 아로마오일을 사용할 경우 치료 효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피부건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오일들을 선택하여 경북 안동시 성소병원에 내원한 피부건조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로마오일이 스킨 pH, 소양증에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임상 실험을 해 보았다.

연구결과, 실험환자들의 스킨 pH가 낮아지고 소양 증상의 정도(severity)나 가려운 부위(location), 빈도(frequency),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함 등에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킨 pH 측정의 경우, 소양증 환자의 경우 스킨 pH가 7.0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 소양증을 호소하고 피부건조증의 일반적인 증상(피부균열, 습진 등)을 지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킨 pH Meter(세창

〈표 3〉 아로마오일 사용 전과 후의 소양(가려움) 증상의 변화

구분	사용 전(mean±SD)	사용 후(mean±SD)	t	p-value
증상정도(severity)에 관한 점수	5.13±1.60	3.83±2.29	2.669	0.014
가려운 부위(location)에 관한 점수	2.22±0.74	1.43±1.04	3.332	0.003
가려운 빈도(frequency)에 관한 점수	1.96±0.77	1.83±1.03	0.485	0.633
가려움으로 인한 생활이 불편한 정도에 관한 점수	1.61±0.94	0.91±1.08	3.272	0.003

\* 주 : 소양증 증상점수는 severity(4점 만점), location(3점 만점), (frequency(3점 만점), 증상으로 인한 영향(3점 만점)으로 총 13 점 만점.

인스트루먼트사, 모델명 : HI98110, made in 포르투갈)를 사용해 스킨 pH를 측정해 본 결과 평균값이 5.58로 정상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경우가 6.8이었고 가장 낮은 경우는 4.9이었다. 이러한 지원자들에게 아로마오일을 제공하여 2주에 1회씩 2번의 경과를 관찰한 3주 후부터 스킨 pH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로마오일 4주간의 사용으로 스킨 pH 평균값이 0.22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p=0.001$ ). 이 연구의 시험대상 중 스킨 pH가 7.0에 가깝고 알칼리성의 피부를 가진 것으로 판명된 환자의 경우 스킨 pH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환자들의 평균값도 낮아져 아로마오일이 일반적으로 스킨 pH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피부건조증 환자의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시험환자들의 스킨 pH 수치가 낮아진 것은 아니었고 일부는 높아진 환자도 있었으며, 동일한 환자의 경우에도 측정부위나 시간, 온도나 습도에 따라 측정값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표본개수를 많이 하여 오차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

피부건조증 환자의 일반적인 임상증상인 소양증의 경우 아로마오일 사용 전 수치와 사용 후 평균값의 차이가 통증이 1.30( $p=0.014$ ), 소양감의 빈도가 0.13, 소양감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0.70( $p=0.003$ )으로, 아로마오일이 피부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이나 통증, 이로 인해 일상생활 미치는 악영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를 위한 표본 수가 적고 충분히 시험대상자들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기간이 길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 본 아로마오일에 관한 대부분의 임상시험 역시 소규모이고 단기간에 걸친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아로마오일로 치료효과가 있지도 않았고 일부의 경우

에는 부작용은 없어도 증상점수가 악화된 경우도 있었다. 만성적인 피부건조증 환자의 경우, 스테로이드제 과다사용시 나타나는 피부위축이나 스킨 pH가 높아지고 피부가 얇아지는 등의 부작용과 스테로이드제 사용 중단 시 나타나는 반동현상을 고려하면 아로마오일이 이러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계획 시 장기간 동안 아로마오일 사용 시 나타나는 변화를 충분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일부 아로마오일의 경우 소아나 임산부에 부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다양한 실험환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표본에 대한 더욱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권구일, 아로마테라피의 금연효과, 가정의학회지, pp.1105-1111. 2001
- 김혜경, 여고생에서 월경곤란증에 대한 아로마향기요법의 치료효과, 가정의학회지 242 pp.922-929. 2001
- 한선희, 양복순, 김희자, 중년여성의 복부비만 감소에 영향을 주는 향기요법마사지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제33권 제6호 pp.839-846. 2003
- 한선희, 허명행, 강지연, 아로마테라피가 생리통이 있는 여대생의 월경 중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제32권 제3호 pp.317-326. 2002
- 허명행, 박미혜, 아로마테라피가 초산부의 분만과정, 분만통통, 분만스트레스 반응 및 신생아 상태에 미치는 효과 : 무작위 임상실험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 제46권 제4호 통권 제490호 pp.776-783. 2003
- Buckle J. Clinical aromatherapy and AIDS,



-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 13(3) : 81-99, 2002
- Ballard CG, O'Brien JT, Reichelt K, Perry EK, Aromatherapy as a safe and effective treatment for the management of agitation in severe dementia,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3(7) : 553-8, 2002
- Isabelle C. Hay et al, Randomized Trial of Aromatherapy(Successful Treatment for Alopecia Areata), Arch Dermatol, 1998
- Margaret Louis, RN, PhD, Susan D. Kowalski, RN, PhD, Use of aromatherapy with hospice patients to decrease pain, anxiety, and depression and to promote an increased sense of well-being, American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Care, Volume 19, Number 6, 2002. pp.381-386.
- Rimmer L, The Clinical use of aromathrapy in the reduction of stress, Home Healthcare Nurse 16(2) : 123-6, 1998 Feb.
- Ro, You-Ja ; Ha, Hyae-Chung ; Kim, Chun-Gill ; Yeom, Hye-A, The Effects of Aromatherapy on Pruritus in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Dermatology Nursing, Volume 14(4). August 2002. 231-239.